

30년 유기농 외갈...기능성 보리로 역대 소득 일구다



오관수 오가닉팜(주) 대표 부부

오관수 오가닉팜(주) 대표, '베타헬스' 45ha 유기농 재배 직접 배양 미생물·친환경 숙성 퇴비 등 천연자재만 활용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보리 품종이 전남에서 대규모 유기농 재배에 성공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는 함평군에 있는 오가닉팜(주)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능성 보리 품종 '베타헬스'를 45ha 규모로 2년 연속 유기농 재배하는 데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베타헬스는 혈당 조절 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기능성 보리 품종이다. 농

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이섬유는 일종인 베타글루칸 함량이 14%로 일반 보리(6%)보다 2배 이상 높다. 저항전분 함량도 55.7%에 달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배 안정성도 높다. 쓰러짐과 병해에 강하고, 겨울철 최저 평균기온이 영하 6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 생육이 양호해 전남지역 재배에 적합한 품종

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재배를 이끈 오관수 오가닉팜(주) 대표는 30여 년간 유기농 쌀과 보리를 재배해온 전남지역 대표 유기농업인이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배양한 미생물과 친환경 숙성 퇴비 등 천연자재만 활용해 재배하고 있다.
오 대표는 올해 베타헬스 약 200t을 생산해 '명인드림' 브랜드로 판매할 계획이다. 생산 물량은 자연드림 아이쿱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해 전량 유통될 예정이다.
경제성도 높다. 베타헬스는 40kg 기준 5만5000원에 거래돼 일반 보리(3만5000원)보다 약 1.6배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오 대표는 올해 약 2억75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기능성 보리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 기능성 농산물을 갖춘 유기농 작물 생산을 확대해 농가 소득 향상과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기능성 보리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국제농업박람회, 해남 오디농가 찾아 일손돕기

수확작업 돕고 농가 환경정비 박람회 성공 개최 의지도 다져

전남국제농업박람회는 최근 해남 문내면 오디 농가를 찾아 수확 지원과 환경정비 등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치고, 직원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활동은 본격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운 지역 농가를 지원하고, 농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한 사무국 직원 간 협력 기반을 다지고, 2027 국제농업박람회의 성공 개최 의지를 모으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번 활동에는 사무국 직원 9명이 참여해 수확 절정기를 맞은 오디 수확 작업을 도왔다.
이어 농가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부서 간 소통 간담회를 통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박람회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도움을 받은 농가는 "수확 절정기에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이 컸는데, 사무국 직원들이 도와줘 큰 힘이 됐다"며 "2027 국



전남국제농업박람회는 최근 해남 문내면 오디 농가를 찾아 수확 지원과 환경정비 등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치고, 직원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제농업박람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고숙주 전남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은 "일손돕기는 사무국 직원들이 지역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2027 국제농업박람회가 지원하는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7 국제농업박람회는 '지구를 위한(해·답), K-에너지 농업'을 주제로 2027년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나주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린다. 신재생에너지와 로봇·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농업, 자율주행 농기계, 청년 창업기업 전시 등 미래농업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건협 광주전남지부, 어르신 건강체험 캠페인

뇌파·맥파 측정·두뇌 기능 상태·집중력 등 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나주시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체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령층의 건강 인식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뇌파 및 맥파 측정을 통해 두뇌 기능 상태와 스트레스 수준, 집중력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특히 검사 과정이 간편하고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뤄졌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평소 쉽게 알 수 없었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유익했다"며 "앞으로 건강관리에 더



욱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 나눔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화순전남대병원, '간호사의 날' 행사 개최

힐링프로그램 운영...휴식·재충전 시간 제공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병원 미래 의료혁신센터 야외가든에서 간호사의 날 행사 '봄날의 심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바쁜 의료현장 속에서도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들에게 잠시나마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 조직 내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간호사들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했으며, 참여형 퀴즈 이

벤트와 경품 추첨도 함께 진행돼 현장 분위기를 한층 밝고 활기차게 만들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간호사들의 소진(Burnout) 예방과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행사 장소의 분위기가 매우 좋았고, 바쁜 업무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희 간호부장은 "24시간 환자 곁을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병원 미래의료혁신센터 야외가든에서 간호사의 날 행사 '봄날의 심포'를 개최했다.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간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한전KPS, 나주 취약계층 전자제품 후원

한전KPS는 전남 나주시 영산동 경로당 5개소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후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영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경로당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자제품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한전KPS에 사회공헌 활동 협업을 제안하면서 시작됐고, 한전KPS는 자체평가를 거쳐 1000만원 후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한전KPS는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생활을 위해 에어컨 1대, 김치냉장고 2대, 냉장고 1대, TV 1대 등 총 7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경로당 5개소에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 11세대를 대상으로 총 300만원 상당의 소형 가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도찬 영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



간위원장은 "한전KPS의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동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옥 나주 영산동장은 "지역민을 위한 한전KPS의 꾸준한 관심과 협력에 감사하다"며 "보내준 제품을 어르신과 소외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희정 기자 pose007@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클레니지지도사(자격면)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차매에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은세 (음력 4월 18일)

- | | | |
|---------------------------|----------------------------|----------------------------|
| 48년생 눈앞에 재물보다 배우자를 생각하라 | 49년생 기본적인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라 | 50년생 여행 가던 고생을 할 수도 있다 |
| 60년생 용이한 결과가 도출 될 수 있겠다 | 61년생 소망하는 일이 이뤄질 것이다 | 62년생 바람직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된다 |
| 72년생 구상수에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라 | 73년생 임의적인 예단은 소모적일 뿐이다 | 74년생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라 |
| 84년생 쉽게 결론 내려질 수도 있다 | 85년생 부도 수표를 주의하라 | 86년생 뛰어들지 마라 |
| 96년생 외관이 좋다면 실속도 있겠다 | 97년생 유행성을 발휘해야 할 때 | 98년생 소망이 너무 원대하다 |
| 51년생 말을 듣고 나면 총격에 빠질 수 있다 | 52년생 넘어지고 배이는 것을 주의하라 | 53년생 과음은 중병을 부른다 |
| 63년생 가까운 곳에 문이 있을 것 | 64년생 강한 것은 꺼지지 격정하지 말라 | 65년생 뜻은 세어놓고 행동은 열매다 |
| 75년생 닭 쫓던 개가 될 수 있다 | 76년생 부부간 갈등이 시작 될 수도 있다 | 77년생 가족의 도움으로 회생 할 것이다 |
| 87년생 잃어버린 물건 서랍방에 떨어져 있다 | 88년생 절실하다면 체면 불구하고 요청하라 | 89년생 주머니가 불타다 |
| 99년생 이성 관계는 긍정적으로 작용 한다 | | |
| 54년생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뤄진다 | 55년생 일은 풀리지 않고 얽혀만 간다 | 56년생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만사가 막혀 있다 |
| 66년생 다른 일을 기회해도 성공할 수 있다 | 67년생 부조곤 나한테 돌아오는 대로 잡아라 | 68년생 불면하다면 빨리 개선하라 |
| 78년생 진전을 보이다가 분개도에 오른다 | 79년생 어떤 형편에 놓여도 확실한 주관을 갖자 | 80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겠다 |
| 90년생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니 준비하라 | 91년생 먼 친척보다 친구가 낫다 | 92년생 소임은 반드시 완수해야만 한다 |
| 57년생 가족의 조언 받아들이는 날 | 58년생 바라던 모든 것이 때를 만난듯하다 | 59년생 기쁨의 휴식은 약이 된다 |
| 69년생 둘다리도 두드러야 한다 | 69년생 벌금 잘 지켜야 한다 | 71년생 실수를 두려워하면 대응력이 약화 된다 |
| 81년생 독창적 안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 | 82년생 의지할 곳이 없으니 외롭고 서럽다 | 83년생 스트레스가 심하니 자신을 잘 풀어라 |
| 93년생 대체로 길조다 | 94년생 데이트가 성사돼 환호성을 지른다 | 95년생 말보다는 행동을 보이면 인정 받는다 |